



보험연구원
Korea Insurance
Research Institute

보 도 자 료

보도

2017. 10. 31(화) 조간부터

배포

2017. 10. 30(월)

책임자

금융정책실
김석영 실장(3775-9034)

작성자

정원석 연구위원(3775-9037)

홍보담당

변철성 수석역(3775-9115)

총 4매

보험연구원, 『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입법에 대한 보험설계사 인식조사』

- 보험연구원(원장: 한기정)은 『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입법에 대한 보험설계사 인식조사』 보고서를 발간함
- 동 보고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, 고용보험 가입 등 근로자성 적용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보험설계사의 의견을 설문을 통해 취합한 결과를 수록하였음
 - 『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입법에 대한 보험설계사 인식조사』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설계사들은 스스로를 자영업자라고 생각하는 비중이 높았으며, 자영업자로서의 업무형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
 - 특히 사회보험 가입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제공하는 산재보험 보다는 회사가 제공하는 단체보험을 선호했으며, 고용보험의 경우 의무가입 보다는 가입여부를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을 선호하였음
 - 정원석 연구위원은 특수고용직근로자에는 여러 특성을 가진 종사가자 존재하므로 정책 도입 시 각각의 업무 특성과 필요를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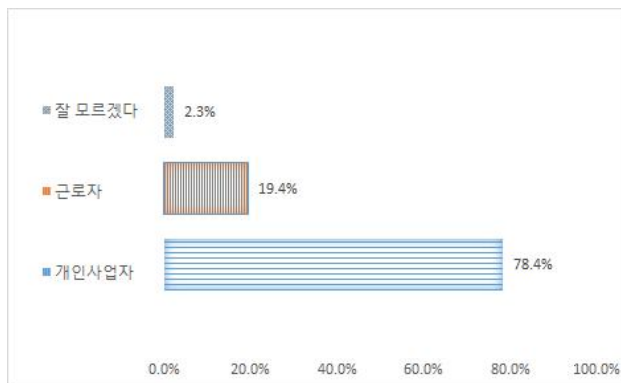
[요 약]

-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관련 법안에 대한 설계사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전국 생명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전화설문을 실시함
 - 교보, 미래, 삼성, 신한, 한화, AIA, ING, Met 등 8개 생명보험회사의 전속설계사 2,560명을 대상으로 2017년 8월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전화로 설문조사를 실시함
 - 설문조사 결과, 800명이 전화설문조사에 응하였으며 신뢰수준은 95%±3.44%이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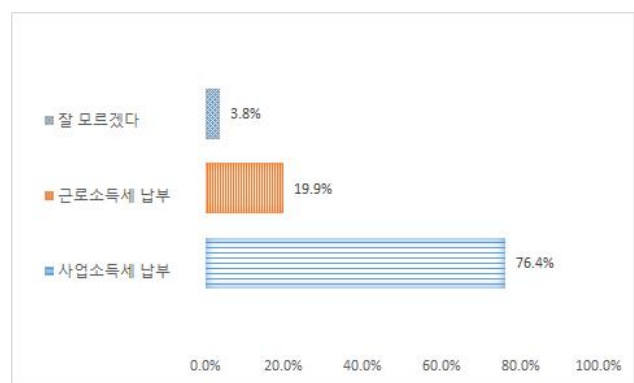
대부분의 설계사들은 스스로를 자영업자로 인식

- 설계사들은 고용형태로는 근로자보다 개인 사업자를 그리고 납세형태로는 근로소득세 보다 사업소득세 납부를 더 선호함
 - 고용형태로는 개인사업자 선호가 78.4%, 근로자 선호가 19.4%로 나타남
 - 납세형태로는 사업소득세 선호가 76.4%, 근로소득세 선호가 19.5%로 나타남

<그림 1> 설계사들이 선호하는 고용형태



<그림 2> 설계사들이 선호하는 납세형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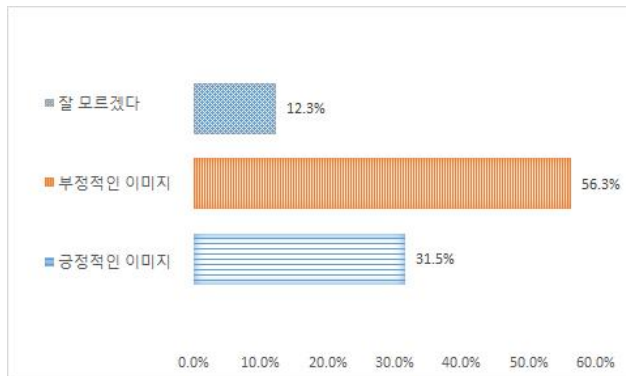


노동조합 관련 인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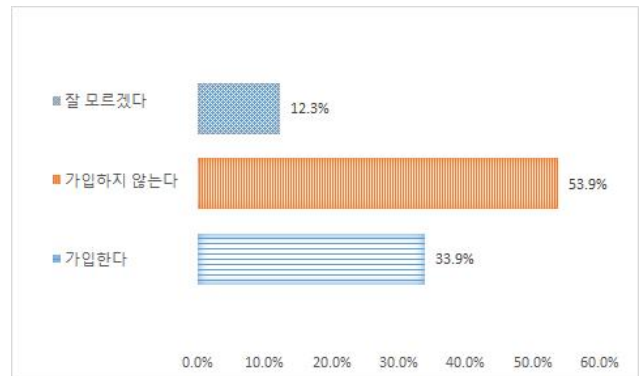
- 설계사들의 타업종 노동조합에 관한 이미지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긍정적인 이미지보다 높으며 노조설립 시 가입의향 역시 낮음
 - 타업종 노동조합에 대한 이미지로는 부정적 이미지라는 답변이 56.3%, 긍정적인 이미지라는 응답은 31.5%로 나타남

- 보험설계사 노조 설립 시 가입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3.9%, 가입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53.9%였음

<그림 3> 타업종 노동조합에 대한 이미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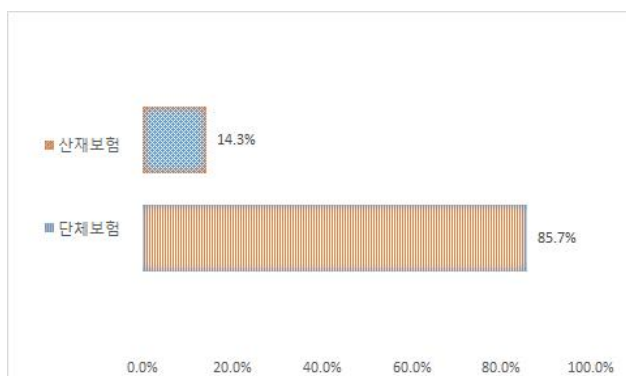
<그림 4> 설계사들의 노동조합 가입의향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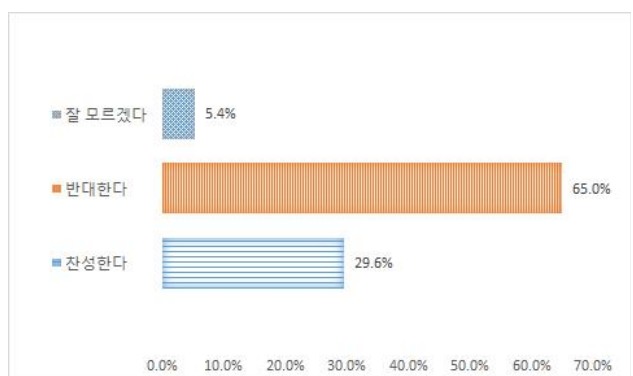
산재보험가입 관련 인식

- 설계사들은 산재보험 가입보다 현재 보험사로부터 제공받고 있는 단체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선호함
 - 단체보험을 선호하는 비중은 85.7%로 산재보험을 선호하는 비중 14.3%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음
 - 산재보험 가입의무화에는 반대가 65%로 찬성 29.6%에 비해 2배 이상 높았음

<그림 5> 단체보험과 산재보험 중 선호 보험



<그림 6> 산재보험가입 의무화에 대한 의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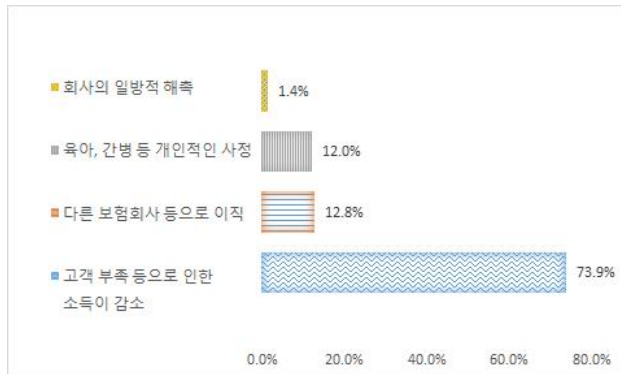


고용보험가입 관련 인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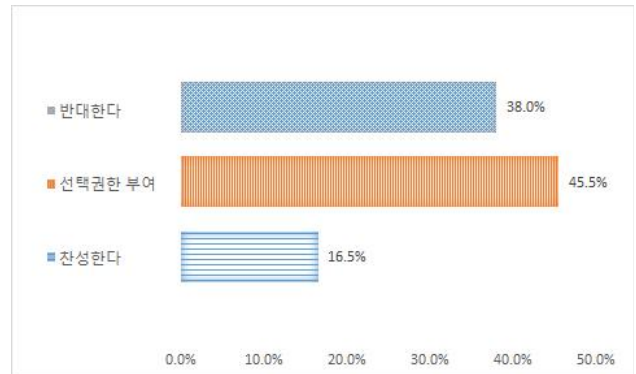
- 설계사들은 고용보험 의무가입 제도 도입에 부정적임
 - 고용보험 의무가입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38%는 의무가입에 반대하였으며 45.5%가 본인부담이 늘어나므로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음

- 설계사들은 자발적 퇴직이 대부분인 설계사 직업 특성상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 부담만 지고 혜택을 받기는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임

<그림 7> 동료 중 설계사를 그만두는 경우 이유



<그림 8> 고용보험가입 의무화에 대한 설계사들의 인식



- 설문조사 결과 보험설계사들은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등 업무관련 사회보험은 본인들의 직무특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의무가입에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남
- 특수고용근로자로에는 설계사, 레미콘기사, 택배기사, 학습지교사 그리고 골프장 캐디 등 다양한 특성을 가진 종사자가 존재하므로 각각의 업무 특성과 필요를 고려한 접근이 필요함
- 특히 해당 종사자 보호와 편익증진을 위해 사회보험 제공을 추진하는 것인 만큼 정책 도입 과정에서 당사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할 필요가 있음

<붙임> KiRi리포트 『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입법에 대한 보험설계사 인식조사』 1부. 끝.